

권속동 안동중친회장 안동대에서 동문상 받아



권속동 안동중친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0월 27일 오전 10시 국립안동대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했다.

국립안동대학교총동문회 주최 <2019년 정기총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가 안동대 실내체육관에서 권속동 국립안동대 총장, 권계동 대총회 고문, 김광림 국회의원, 권오을 바른미래당 위원장, 시내 기관장, 유지, 졸업생, 재학생,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속동 회장이 김영우 국립안동대총동

문회장으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은 내용을 보면 권속동 동문은 국립안동대총동문회 제7회 회장으로 동문회와 안동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 대학정책실 교육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후진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날 권계동 대총회 고문, 권오의 사무부총장, 권기호 북아공파총회장, 권영건 부회장, 권공파총회장, 권기원 파총회총합의회 사무국장 등 5명이 권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축하를 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5000만원 후원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신대양제지 대표)은 지난 10월 7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5000만원 후원을 약속했다. 권 부회장은 "중소기업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부금을 연말연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근로자 장학금 후원, 김치 나누기, 재난기금 기부, 지역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왼쪽)가 중소



기업사랑나눔재단에 5000만원 후원을 약속하고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권기택 이화축산 대표, 국무총리 표창 수상

권기택 이화축산농조합 대표가 지난 16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그동안 지역 축산물의 생산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권기택 대표는 중소기업융합 안동교류회장과 안동라이프클럽 회장을 지냈으며, 이화축산이 지난 2009년 전국 1등 농장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5년에는 '경북농업(축산)명장'을 받았다. 특히, 권 대표는 안동지역 경제에 공헌

이 큰 기업가로서 안동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선정하는 '2018년 기업가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권 대표는 지난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 및 결손가정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안동대학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안동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선정하는 '2018년 기업가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권 대표는 지난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 및 결손가정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안동대학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권용준 프로종합관리(주) 회장 2019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권용준(추밀공과 38세) 프로종합관리(주) 회장이 2019 제10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관·주최) 사회공헌인 부문에 영광을 차지했다. 권 회장은 지역안전관리·보안경비(시설물관리·철도차량청소·환경위생관리·용역서비스 등)책임·신뢰경영실천 및 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부간선도로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소신 있는 청소관리로 해마다 1,780명의 일자리가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청소전문용역 중견기업으로 제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에 권 회장은 "향후 철도차량정밀안전 진단기관과 공기정화사업 등을 육성시켜 성장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권 회장은 지역사회발전과 노인 복지향상을 위한 인재육성장학금·소외계층·독거노인·장애인·불우이웃돕기 등 나눔·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동권씨 안양중친회 장학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해마다 4명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 회장은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실버타운·장학사업 조성으로 노인복지·청소년육성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는 기회다"란 조언으로 청소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권용준(추밀공과 38세) 프로종합관리(주) 회장이 2019 제10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관·주최) 사회공헌인 부문에 영광을 차지했다. 권 회장은 지역안전관리·보안경비(시설물관리·철도차량청소·환경위생관리·용역서비스 등)책임·신뢰경영실천 및 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회장은 "내가 필요한 것은 직원·용역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갖고 그들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나눔으로 베풀며 불편함이 없도록 청기는 마음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1년에 서울 금천구에서 물탱크청소전문 청소환경개발로 시작해 국내 청소용역소독·건물시설관리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 1998년에 프로종합관리(주)법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기 전 당시 국내 기업·기관 등은 물탱크청소를 하지 않고 있어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점을 착안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물탱크전문 청소업의 길을 걷게 됐다"며 "물탱크의 수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항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로종합관리(주)는 '모든 일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라는 사훈이래 코엑스, 서울지하철공사 차량, KTX전국역사관, 상암구장,

권의재 익산철스크랩 주식회사 대표이사 국제청장표창

권의재 익산철스크랩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제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익산철스크랩(주)은 2001년 설립한 이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시 생각하며, 자원의 재활용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앞장서 자원순환형 녹색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

에 환원하고 기업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철강자원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부고

권복경 안동권씨 대총회 고문(전 치안본부장)이 지난 9월 13일 별세(향년 89세)했다. 권 고문은 5년 순경으로 출발하여 36년 만에 치안총수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듄직한 체구에 활달한 성품으로 상하 인간관계가 부드러워 경찰 내부에서는 '큰형님'으로 통했다. 경무·감사·정보등 경찰 각 분야를 두루 거친 경찰행정

통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시경국장 재임기간 중 집무실에서만 기거, 하루도 집에 들어간 적이 없던 '주거부정 국장'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고인은 성남시 메모리얼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부인 박증자여사와 자녀로는 2남 1녀를 두었다.

등정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반도문화재단을 설립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조례 제정 촉구

▲대전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공학과 권혁홍 교수가 18일 서울 삼성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대학 지식재

산교육 확산 컨퍼런스 및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20년도 회장으로 선임됐다.

▲(사)대한무궁화중앙회 주최로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무궁화 대상 시상식'에서 큐브피

아 권석철 대표이사가 IT보안기업부문에서 대한민국무궁화상 수상

▲국립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권오현(역사교육)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북대학교 권삼현 교수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제25차 종합학술대회장으로 선임됐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정신을 기리는 '제2회 하얼빈안중근 동양평화문화축제'를 23일

의거 현장인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진구(金谷)호텔 대연회에서 개최했다.

권기홍 제주도 하효경로당 회장 대통령 표창

권기홍 서귀포시 하효동 경로당 권기홍 회장이 2019년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르신들을 위해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한 바를 인정받았다.

권 회장은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마을안길 정비, 영농회 중심 선과장 운영, 농업용수 개발 등 지역 주민을 위해 힘써온 점과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

권직묵 옹 입석 고유 제례 엄수

권직묵(부정공과 34세) 옹이 지난 8월 3일 노환으로 90세의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에 장사를 치른지 25일만인 9월 28일(토)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 선영하의 묘소에서 40여명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석(立石) 고유(告由)를 엄수하였다. 유족으로는 이필여 여사와 오영, 오복, 오경, 오철, 오홍, 오

열 등의 6남과 정자와 현숙 2녀를 두었다.

50년 전통의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대양그룹 회장 권혁홍

대표번호 : 02-3472-5915 홈페이지 : www.dygroup.co.kr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 강남빌딩 5층 대양그룹